

시멘스社 1분기 매출액 증가

멕시코의 시멘스사의 1분기 매출액은 합병된 RMC사의 한달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42.9% 증가한 25억 8,520만달러(이하 미화기준)를 기록하였으며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는 13.8% 증가한 6억 3,320만달러를 시현하였다. RMC사의 합병을 제외한 매출은 8.2% 증가한 19억 5,650만달러를 시현하였으며 EBITDA는 4.7% 증가한 5억 8,270만달러를 시현하였다. 3월 한달동안 RMC사는 전체 실적에서 6억 2,880만달러의 매출과 EBITDA 5,050만달러의 실적을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RMC사의 합병의 영향으로 순채무는 지난해 동기 대비 95%가 증가하였고 동기간 동안 자본지출은 2,200만달러에서 9,200만달러로 높아졌으며 RMC실적을 포함한 시멘트 출하는 4.6% 증가한 1,641만톤을 기록하였다.

멕시코에서의 영업은 올해초 2개월 동안의 기상 악화와 부활절 휴일 주간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으로 2.2% 감소한 6억 8,17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시멘트 출하는 57% 증가한 수출물량에도 불구하고 대략 7%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 기간 시멘트 가격은 1% 인상(달러 기준)되었다.

미국의 사업부문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RMC사의 실적을 포함하기 전의 미국내 시멘트 매출은 21.5%가 증가한 4억 9,080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기간 가격은 전년동기의 18% 상승에 비해 7% 인상에 그쳤다.

레미콘 출하는 전년대비 6% 증가하였으며 가격도 전년 1분기 대비 인상되어 유틸리티와 물류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폭이 커졌으며 EBITDA는 44.4% 증가한 1억 730만달러에 이르렀다.

베네주엘라의 매출은 6.5% 증가한 8,010만달러였으며 이는 수출이 1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 성장한 내수출하 증대가 큰 역할을 했다.

베네주엘라의 시멘트 가격은 달러화 기준으로 2%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에 레미콘 역시 3%의 출하 감소에도 불구하고 15%의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EBITDA는 8.2% 상승한 3,410만달러를 기록했고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이익폭이 늘어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의 사업은 달러화 기준으로 25%의 시멘트 가격하락(콜롬비아 통화기준 34%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시멘트 출하는 28% 증가하였고 매출 역시 5.2% 증가한 5,980만달러를 시현하였다. 이익은 가격하락으로 59.3%에서 35.9%로 감소하였으며 EBITDA 역시 36.3% 하락한 2,150만달러를 시현하였다.

중미(中美)와 카리브해 연안국들은 평균가격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3% 증가한 1억 5,900만달러의 매출신장과 도미니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멘트 출하의 증가를 나타냈다.

스페인 사업부문에서는 14.6% 증가한 3억 3,46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수송량 역시 4% 증가하였고 가격은 스페인 통화기준으로 5% 인상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주택 및 인프라 부문의 시멘트 수요 증대로 9%의 시멘트 출하가 증가하였으며 달러화 기준 25%의 가격인상(이집트 통화기준 17% 인상)까지 감안, 40.3% 증가한 5,950만달러의 매출 증대를 시현하였고 EBITDA 역시 67.4% 증가한 3,210만달러를 기록하였다.(EBITDA: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감가상각비)

(International Cement Review 5월호)

스페인, 시멘트 소비 감소

스페인 시멘트협회는 1분기 국내 시멘트 소비가 전년대비 0.3% 감소한 1,140만톤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에 있었던 부활절 주간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1분기 시멘트 생산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1,120만톤을 생산하였으며 수출은 16.9% 상승한 36만 558톤을, 수

입은 11.8% 감소한 160만톤에 그쳤다고 협회는 발표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5월호)

타이완 시멘트사의 향후 목표

타이완 시멘트사의 회장인 레슬리 쿠는 지역언론에 2008년까지 중국 본토에서 3위의 시멘트 생산업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완 시멘트사는 이와 같은 그의 언급이 중국 남부에서 우월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동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1억 1,000만톤 정도의 시멘트 수요를 필요로 하는 중국 남부지역에서의 시장확대를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쿠회장은 밝혔다.

또한 그는 수년동안 중국에서 지속적인 사세 확장을 한 결과, 타이완 시멘트사의 올해 1분기 시멘트 출하는 1,000~1,100만톤으로 예상되어 진다고 덧붙였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5월호)

홀심 필리핀사, 가격인상이 회복 이끌어

홀심 필리핀사는 지난 2003년 3억 1,870만페소의 적자에서 지난해 12억페소의 흑자(세후순이익)로 전환하였다고 밝혔다.

홀심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의 회복, 수출물량 증대 및 시멘트 수입의 감소가 이러한 흑자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홀심 필리핀사(前 유니온시멘트사)에게 지난해 영업현황은 3%에 달하는 국내 시멘트 수요 감소로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폴 오켈러한은 “지난 2004년에는 성과가 좋았으나 홀심 필리핀사에겐 변화의 해였었고 향후에도 사업에 대한 더 많은 변화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정부가 향후 인프라 투자에 제한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시멘트 수요

가 계속 낮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료 및 전력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운영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에 우리 회사는 대체 연료와 원료의 사용 등 다른 선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 오켈러한 최고운영책임자는 최근의 수입시멘트 유입이 국내의 시멘트 과잉공급 상태에서 향후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5월호)

이탈시멘티사, 2005년 목표 발표

이탈시멘티사의 지암피에로 페센티 회장은 이탈리아의 최대 시멘트 업체로서의 올 그룹 목표 전망을 고비용과 일련의 기상악화로 인해 적정 수준으로 결정한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우리의 전망을 유지할 것이며 5월 4일 이사회 회의 후에 몇가지 지표를 밝힐 것이다”라고 페센티 회장은 밝혔다.

지난달 이탈시멘티사는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어난 기상악화로 인해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페센티 회장은 시멘트 수요가 급증하는 아시아, 특히 인도에서의 확장 전략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탈시멘티사는 신흥시장에서 그들의 위치를 강화하는데 집중해 왔으며, 최근에 수에즈 시멘트사에 대한 경영관리를 시작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5월호)

홀심사, 전략적 거래 완료

홀심사는 올초에 발표된 인도에서의 전략적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홀심 그룹은 현재 Ambuja Cement India사의 지분 33%를 소유하고 있는 Gujarat Ambuja 시멘트사와 함께 동사의 지분 67%를 갖고 있다.

인도에서 이번 홀심사의 계약으로 Ambuja Cement India사가 94%의 지분을 갖고 있는 Ambuja Cement Eastern사와 34.6%의 지분을 소유한 The Associated Cement Companies의 지주회사가 되었다. 이번 투자에는 총 5억 1,800만달러가 투입되었다.

Ambuja Cement India사의 The Associated Cement Companies사의 주주를 상대로 한 공개매수는 4월 11일에 끝났다. Ambuja Cement India사는 주당 370루피의 가격으로 The Associated Cement Companies사의 주식자본 중 20.8%를 변경하였다. The Associated Cement Companies사의 3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mbuja Cement India사는 현재 최대 주주이며 적절한 공시가 곧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래의 완료와 함께 홀심사는 인도에서 제2위의 시멘트 생산회사가 된 Ambuja Cement India사를 통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2천만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홀심사는 역동적인 인도 시멘트시장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 의견 공유를 통해 The Associated Cement Companies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The Associated Cement Companies사와 Ambuja Cement Eastern사의 성장에 관여할 것이다. 좋은 교육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된 양사의 인도에서의 위치는 홀심사와 Ambuja Cement India사에겐 세계 제2위의 시멘트 시장인 인도에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Associated Cement Companies사와 Ambuja Cement Eastern사는 각각 1,820만톤과 2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12개의 시멘트 공장과 3개의 분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World cement 5월호)

St, Lawrenc Cement社, 증설 포기

뉴욕주로부터 불가관정을 받은 후 홀심캐나다사

의 이사회는 뉴욕주의 그린포트에 새로운 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욕지역 시장의 시멘트 수요에 대한 생산 및 공급은 새로 계획되었던 시멘트공장에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Catskill로부터 이뤄질 것이다.

최근 St, Lawrenc Cement사의 발표에 따르면 기 발생된 370만 캐나다달러의 건설계획 관련 비용은 올 2/4분기에 회계에서 삭제될 것이다.

계획관련 비용의 준비는 이미 그룹 회계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홀심사의 재정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World cement 5월호)

베트남, 공급부족 지속될 듯

베트남 시멘트사는 올해 수요급증으로 인해 시멘트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생산량은 2,260만톤이 될 것이지만 소비량은 2,91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년간 수요는 15% 증가해왔고 공급은 10% 증가에 그쳐 부족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건설부 장관은 올해 시멘트수입은 없다고 발표했다.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베트남 시멘트사는 이러한 부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14억달러를 투자하여 8개의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올해 연말에 2개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베트남 시멘트협회의 Nguyen Van Thien 회장은 올해 3,000만톤의 시멘트를 확보하기 위해 600만톤의 크링카를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 재무장관은 건설성수기에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크링카수입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하였다.

지난해엔 420만톤의 크링카를 수입하였다.

시멘트 수요는 국유 및 민간 건설회사의 27억 5,000만달러 상당의 1,353채의 신규 주택 건설과 부동산 프로젝트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4월호) ▲